

# SK케미칼, “실미도 경영” 새바람

## 임직원 간담회에서 경영혁신 강조 ... 생존을 위한 경영변화 바람

SK케미칼이 치열한 경쟁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변화경영인 “실미도 경영”을 추진하며 신선한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SK케미칼은 임직원 간담회에서 영화 <실미도>에서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혹독한 훈련을 통해 군사 전문가로 변신해가는 과정을 본보기로 SK케미칼의 경영 메시지를 ▷확고한 목표 ▷명확한 의사결정(리더십) ▷엄격한 교육이라는 3가지 목표에 집중기로 결정했다.

SK케미칼은 경영환경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어 기업의 생존과 더 나아가 발전을 위해서 확고한 목표를 가져야 하며, 기업의 리더는 상황 변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원들이 스스로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고 자신의 성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훈련만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미도 경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촉발한 김대성 주임은 “실미도 정신과 같이 구성원들에게 확고한 목표의식을 심어주고 이를 바탕으로 구성원 모두가 세계최고의 전문가가 되면 우리도 언젠가는 4500만이 아닌 60억 세계인들에게 이름을 날릴 Success Story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Chemical Journal 2004/03/09>